

## [QT 세미나]

# 목상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상규 목사 / 1999 / 페이지수: 2

### 1. 가나안을 코앞에 둔 모세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기 제2세대에게 신명기를 선포했다.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40년을 돌아볼 때 모세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이 아닌가.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완악한 회중을 견디다 못해 그만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기 때문이다(민 20:10~12).

그러므로 그가 가나안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말하는 감회 속에는 그 누구도 헤아릴 길이 없는 간곡함이 있고, 사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 2. 모세의 유연적 설교 「신명기」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연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신명기에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역사에서 계시된 규례와 법도, 그리고 교훈을 응집시키고 있다. 그것은 출애굽 제1세대가 거의 몰살당하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배운 가르침들이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유독 ‘기억하라’, ‘잊지말라’라는 표현이 강조된다. ‘망각’은 이제까지 그토록 어렵게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게 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40년 광야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고 앞으로 전진 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지혜에 속한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하기 원했을까? 소위 신명기의 기억주제(memorialmotif)로 불리우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애굽에서 노예 되었던 사실(신 16:12/ 24:22/ 24:18)
2. 애굽의 노예상태에서 구원 받은 사실(신 5:15/ 6:12/ 7:18, 19/ 8:14/ 15:15/ 16:3/ 24:18)
3.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신 4:9~13, 23)
4. 요호와 자신 또는 그 명령(신 4:39, 40/ 6:6/ 8:11, 14, 18, 19/ 11:18/ 26:13)
5. 광야에서의 경성(신 8:2, 14~16/ 9:7/ 24:9)
6. 아말렉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행한 것(신 25:17~19)

### 3. 목상을 통해 얻은 여호수아의 힘

그런데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곧 여호와와 옛적 기사